

광주 교육 소식



공직자들 안보 중요성 깨닫다

광주시교육청, 독도·울릉도 안보현장 체험연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소속 공무원 45명이 2박3일간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독도·울릉도를 방문해 안보현장 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6월 28일 울릉도를 시작으로 29일 독도를 방문해 나라사랑과 2017 울지연수 준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안보 현 상태를 확인했다. 독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에게 감사 의미로 전기가발기구 세트를 전달했다.

안보 체험연수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확인하며 공직자로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시교육청 김창복 전경전략관은 "공직자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2017 독도·울릉도 안보현장 체험연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 대상으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안보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손덕영 기자 sdw@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

2017 구별 연합 봉사활동 실시

광주 5개구(동·서·남·북·광산구) 중·고등학생 900여 명이 모여 광주전에서 구별 연합 봉사활동을 펼쳤다.

6월 28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는 24일 광주전에서 광주지역 5개구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지도부, 교원 등 954명이 참여한 구별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광주전 남강교·용산교, 광주공민 앞 광주고, 광천동 광암교, 동림동 산동고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캠페인과 쓰레기 줍기 행사를 통해 도심 속 하천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꿨다. 행사에 여러 번 참여했다는 한 고등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면서 "아름다운 광주의 면을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 박희성 회장은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평소 자녀와 대화가 부족한 부모들의 참여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인성·체험 중심 봉사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지정 학생봉사 연구단체인 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연합 캠페인 봉사활동을 2002년부터 지속 실시해 왔다.

손덕영 기자 sdw@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체제 구축”

장휘국 광주교육감,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 열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남은 1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6월 28일 장휘국 교육감은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워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내일의 희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에 나선다.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단계를 밟아 전체 학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교 교육 질을 단선화를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직선2기 남은 1년 역점 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학교 교육력 향상 ▲사립학교와의 소통 강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 등 학교장

치 강화 ▲5·18교육 전국화 등을 제시했다.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그동안 교육계에 쌓이고 쌓인 직책을 청산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유자하게 혁신교육의 대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직선 2기 3년째에 대한 성과도 제시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3년 ‘혁신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집안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직선 3년 성과로는 ▲정밀한 학교 만들기 ▲학생들에게 ‘행복한 배움’ 제공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수업과 평가혁신 ▲소의학생 없는 생활교육 혁신 ▲마을과 학교의 협치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문화 혁신 등을 꼽았다.

장휘국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의 국가적 책임 강화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이다”며 “이는 직선 1-2기 지난 7년 동안 광주교육이 펼친 정책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남은 1년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덕영 기자 sdw@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공약이행 ‘3년 연속’ 최우수 평가

2017년 전국시·도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SA(최고) 등급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일 홈페이지(manifesto.or.kr)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이 담긴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도 교육감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 평가하고,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민선교육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 분야(100점) ▲표류대상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이행지수 분야(Pass/Fail) 등 5개 분야를 세부 지표 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김길호 정책기획관은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에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데 만족하지 않고, 시민과 약속한 직선 2기 교육감 공약사업들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메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와는 별도로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행정 실천을 위해 ‘2017년 상반기 교육감 공약이행’에 대한 자체평가를 7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손덕영 기자 sdw@



우리 모두 떠나는 신나는 예술여행

광주동산초,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 관람

광주동산초등학교(교장 윤숙자)는 6월 28일 동산초 강당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아빠가 들려주는 스토리 발레-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북권위원회가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섭외된 정미리 발레단(서울)이 직접 모든 발레 장비를 가져와 진행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우리 삶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공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에서 발레와 함께 ‘드레스 메이커 아저씨’ 역을 맡은 극중 인물이 나와 이야기도 들려주고, 학생들과 소리로 함께 외치며 극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무용과 연극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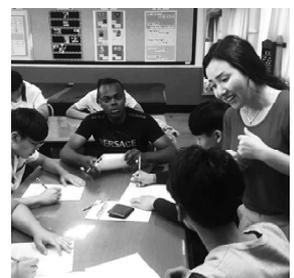
1·6학년 학생들과 병설유치원 원아 등 450여 명은 공연도중 발레리노, 발레리나가 나와서 여러 바퀴 돌고 나가는 뒤는 멋진 동작을 선사할 때마다 감탄사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1·6학년 학생들과 병설유치원 원아 등 450여 명은 공연도중 발레리노, 발레리나가 나와서 여러 바퀴 돌고 나가는 뒤는 멋진 동작을 선사할 때마다 감탄사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담양 교사는 “이번 공연을 통해 발레가 우리를 가까이 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발레라는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아이들의 예술 경험의 폭이 한층 넓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담양 교사는 “이번 공연을 통해 발레가 우리를 가까이 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발레라는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아이들의 예술 경험의 폭이 한층 넓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조민철 기자 jmc@



광주승의고, 일시정소년쉼터와

‘찾아가는 상담 데이’ 운영

광주 승의고등학교(교장 신사현)가 광주광역시일시정소년쉼터와 연계해 매월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 데이’ 첫 행사를 6월 30일 학교 ‘푸른 교실’과 상담실에서 실시했다.

두 기관은 6월부터 매월 하루를 지정해 상담처리가 학교를 방문하여 오후 2-4시까지 개별·집단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날 승의고 ‘푸른 교실’에선 심리검사 도도도 실시했다.

매월 진행되는 ‘찾아가는 상담 데이’는 광주시교육청 교육복지지원센터의 ‘2017 교육복지우선사업-저소득 밀집고등학교 지원 계획’에 따라 마련했다.

승의고 담당 교사는 “시교육청 교육복지사가 지역에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해 (상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교육청·쉼터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찾아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민철 기자 jmc@

Advertisement for 'Global Korea Co., Ltd.' featuring mobile website design services. Text includes '교육기관 모바일 홈페이지 전문회사',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정성과 꼼꼼함을 담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lobal Korea Co., Ltd. in Seoul.

Advertisement for 'BOOKCUBE' electronic bookstores. Features a hand holding a tablet displaying the BOOKCUBE logo and text: '전자책 목록집이 필요 학인 학교, 도서관, 기관은 핸드폰 010-9682-3515번에 문자로 기관명, E-mail 주소를 보내 주시면 E-mail 주소로 전자책 목록집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and contact info for 북큐브네트웍스.

Advertisement for 'AR POP-UP BOOKS' by Vivid Science (EVS). Text includes '증강현실(AR)을 통한 과학과 영어의 만남!!', 'English Vivid Science (EVS)', and '이제 학교에서 영어와 과학을 배우고, 과학으로 영어를 공부하자!'. It shows various AR book covers and a QR code.